

오레곤에 계신 서울대학 동문 여러분,

다 무고하시리라 믿습니다.

**1. 서울대 오레곤동문회 Forum 인 Zoom Table 세미나 시리즈 제 5 차 강연이 어제 6 월 11 일 (토요일)에 있었습니다.**

이번 Washington 지부에서 주관, 오레곤지부 협조였던 한국남교수님의 “희토류” 강연에, 오레곤에서 오신 7 분, 와싱턴주를 포함 타주에서 들어오신 동문 9 분등, 연사포함 모두 16 명의 참석자가 있던 가운데, 보잉의 김재훈박사(공대 72)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. 강연을 해주신 한국남 교수님, 그리고 오레곤동문회의 활동에 참석으로 도움을 주신, 참석 오레곤동문들 감사드립니다.

**오레곤 지역 참석자들 (존칭생략):** 한국남(공대 57), 김성열 (치대 61), 전병택 (상대 65), 정성국 (문리 73), 백대현 (상대 77), 박희진(농대 78), 박혜선 (자연대 79)

**강연 후기 (박 희진)**

날이 갈수록 국가적인 쟁탈전이 치열해져가는 소위 희토류, 일반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희토류에 대한 지식을, 전문 학자이신 한국남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정말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. 희토류의 정의로부터 시작되어, 영구자석 및 catalyst 의 절대적 성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희귀한 특성 (f-block orbital), 그 외 거의 모든 현대 첨단기기에 첨가되는 응용 사례들의 예와 더불어, 이런 희토류의 90% 이상 생산해왔던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보면, “왜 이토록 전세계가 여기에 매달리나?” 라는 의문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. 환경오염건으로 그동안 purification 을 자국내에서 기피했었던 여러 나라들이 지금은 직접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양적 희귀와 small size 로의 존재로, 광물을 분쇄하여, 물리적 화학적 요법으로 정제하는 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도, 알기 쉽게 전달되었습니다. 우리의 모국 한국과 같은 지하자원 빈국에겐,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았던 문구, “재활용 기술을 이용, 지하자원의 지상자원화”, 이는 우리에게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 설정의 암시였습니다.

Washington 지부의 도움으로 강연 녹화 link 를 받았으니, 관심있는 동문은 밑 link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Meeting Recording:

[https://us02web.zoom.us/rec/share/gkcUwCiskoya249NZp6HkGaCvIYjOiEzhDE\\_aTNnJS2KbYZbgV0W42A\\_gmTvCd6h.t30maMLu0FRI4Wnm](https://us02web.zoom.us/rec/share/gkcUwCiskoya249NZp6HkGaCvIYjOiEzhDE_aTNnJS2KbYZbgV0W42A_gmTvCd6h.t30maMLu0FRI4Wnm)

Access Passcode: B#7r%4K@

**2. 오레곤 Zoom Table 제 6 차 강연이 7 월 16 일 토요일 11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.**

**일시:** 7 월 16 일 (토요일) 오전 11 시 (서부시간), 그 후 자유대화시간

**연사:** 이정희 교수 (문리대), 교수, Portland State University

**제목:** 한국/일본/중국, 삼국 문화의 차이와 특징

(부제: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어떤면이 다른것인가)

**이정희 교수**



고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아시아, 중국, 일본은 물론 인도와 중 아시아지역의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시며, 이 분야에 많은 논문과 article 을 발표하신 이정희교수님의 이 강연은,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아시아 한.중.일 삼국간의 문화적/예술적 차이점을 통해, 그들과의 현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위한 세미나입니다.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

이때, 미국의 한국의 문화 열풍에 놀란 이 인접 두 나라의 “문화원조 논란”은,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에 우린 한국혈통으로서, 그동안 서로 비슷하다고만 느껴왔던 우리와 그들과의 문화 예술에,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면이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특이한것인지에대해 더 잘알고있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에, 이 강연이 기대되는 바입니다.

Join Zoom Meeting

<https://us02web.zoom.us/j/86121173694?pwd=WVJyM1BTUVJKNG5lOZNMGICMIJodz09>

Meeting ID: 861 2117 3694

Passcode: 851382

**3. 동문주소록의 Update 를 하려합니다. 현 주소록을 동봉합니다.**

주변에 아직도 동문 주소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동문이나 새로 이지역에 오신 동문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. 또 에러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. 정정하겠습니다.

4. 특히 2000년대 학번의 동문이 전혀 update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오레곤 동문회가 다시 동면상태로 들어갈시 그 명부가 유일한 연락처이니, 동문회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주소록에 모든 서울대 동문이 들어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여러분의 input 을 기대합니다.

5. **미주 총동창회 Web Site 속 오레곤지부 web Page 가 개설되어, 지난 뉴스레터등을 볼수있고, Bulletin board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**

<http://snuuaa.org/main/oregon-chapter/>

6. **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 (6월 24- 26일)**

제 31 차 미주 동문회 평의원회의가 미국 LA Pacific Farms Resort 에서 한국에서 오세정 총장과 김종섭 총동문회장등 여러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. 아쉽게도 올해 동창회 평의원회에 오레곤 참석자가 없습니다.

7. **한국과학 기술 한림원 (회장 유 옥준 박사)의 세미나 시리즈**

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시리즈인 한림원탁토론회의는 모국인 한국의 과학 방향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 시리즈입니다. 세미나 일정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, 한림원 정회원이신 오레곤의 한국남 교수님 (공대 57)에게 문의하시면(동문명부참조) 그 세미나 시리즈의 일정을 알수있습니다.

8. **동문 소식란 입니다.**

여기가 동문 소식 알리는 칸입니다. 동문들에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을때 연락을 주시면, 여기에 실어 알리는 장으로 삼겠습니다.

9. **다음은 다가 올, Zoom Table 대화 시리즈 일정입니다. Link 는 차후 광고시 보내드립니다.**

- 8월 20일 (토요일) 오전 11시: 김 왕도 교수\* (공대 75), 교수, Universidad de Ingeniería y Tecnología (UTEC), Lima, Peru (\* Oregon alumnus)  
"페루 이야기- 잉카 후에 페루의 역사, 도시, 풍속, 페루에서의 생활과 teaching"
- 9월 24일 (토요일) 오후 7시\* (미국 서부시간): 김 영호 박사 (정치외교 78), 교수, 성신여자대학  
"현 한반도와 국제정세" (\*연사가 한국에 있으므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)

이상- 건승하기 바랍니다.

박희진

SNUAA-Oregon 지부회장

Jan 2022-Dec 2022